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31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과	담당자	• 출산지원팀장 이희용 ☎ 440-3221 • 담당자 김도연 ☎ 440-322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남성까지 확대 지원**  
**- 한약치료 · 사후관리 총 6개월간 체질 · 건강 상태에 맞는 한방치료 가능 -**  
**- 선착순 난임부부 250명 모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지원률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시는 인천광역시 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방 의료기관을 모집 · 선정절차를 거쳐 78개소를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방난임치료 기간 동안에는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타 한방난임사업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했으며, 원하는 지정 한방 의료기관을 선택해 한약치료 3개월,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한방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